

ECB의 「디지털 유로화」 관련 공청회 결과 주요 내용

1 개 요

□ ECB는 2020.10월 ~ 2021.1월 중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유로화(digital euro) 도입 관련 비대면 공청회(public consultation)*를 실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최근 발표(2021.4월)**

*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총 18개 문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1~4번 문항은 디지털 유로화 사용자인 일반 시민을, 5~18번 문항은 금융, 지급결제 및 기술 전문가를 주된 대상으로 설정(다만 참여자는 모든 문항에 의견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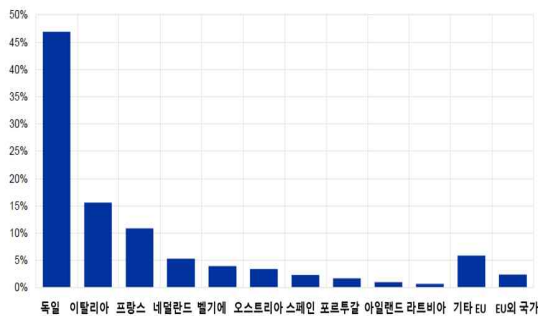
** “Eurosystem report on the public consultation on a digital euro” (2021.4.14)

○ 총 8,221명의 시민(94%)*과 전문가(6%)가 참여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독일(47%)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15%), 프랑스(1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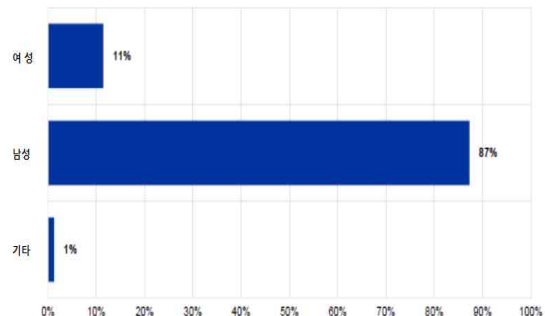
* 남성 87%, 여성 11%, 기타(무응답) 1%

** Fabio Panetta ECB 정책이사는 응답자 표본이 통계적으로 유럽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으나, 금번 공청회를 통해 디지털 유로화 관련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공받았다고 평가(2021.4.14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

국가별 응답자 비중



일반시민 응답자 성별 현황



□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ECB 정책위원회가 금년 중반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공식조사(formal investigation)* 착수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

* 디지털 유로화 설계 가능 옵션, 프론트-엔드 서비스(front-end service) 조건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며 2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Fabio Panetta ECB 정책이사)

○ ECB의 Panetta 정책이사는 디지털 유로화는 유로지역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아울러 디지털 유로화가 지금의 유로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2021.4.14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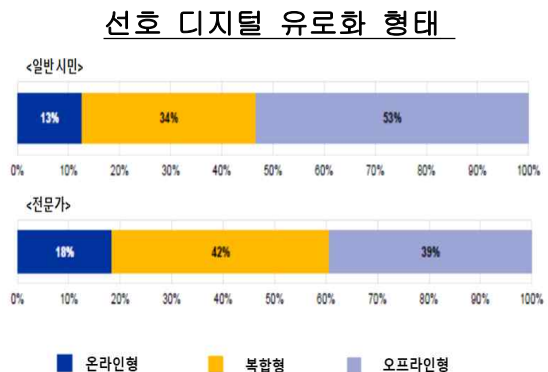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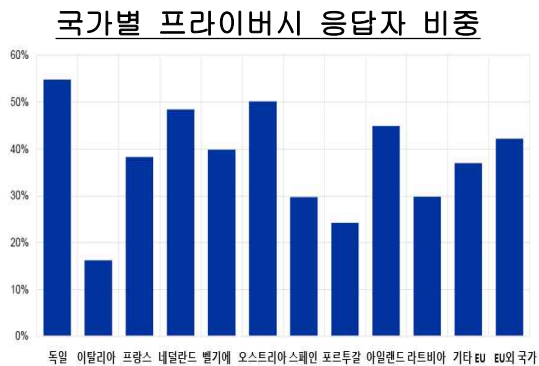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 (디지털 유로화 특성) 디지털 유로화가 갖춰야할 **중요한 특성**으로 시민 및 전문가 모두 **개인정보 보호**(privacy, 43%)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보안성(security, 18%), 범유로지역 사용성(ability to pay across the euro area, 11%), 경제성(no additional costs, 9%), 오프라인 사용성(offline usability, 8%) 등을 답변*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다수 응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디지털 유로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선택

○ 디지털 유로화 유형*에 대해 **일반시민**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오프라인형**에, **전문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혁신적 기술과 부가서비스 기능도 가능한 **복합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디지털 유로화 유형은 ①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형**(offline digital euro) ②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폭넓은 부가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형**(online digital euro) ③ 양자 **복합형**(combination)으로 구분



- 상당수 응답자(약 40%)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디지털 유로화의 **불법적 이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익명성**(anonymity)을 **제한**하여 중앙은행과 중개기관(intermediary)*이 디지털 유로화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공감을 표시**

* 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payment institutions) 등

** Fabio Panetta ECB 정책이사는 유럽의회 ECON에서 디지털 유로화의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익명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과도한 자금흐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디지털 유로화의 익명성 제한 정도는 거래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와 지급결제 정보를 분리 보관함으로써 익명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2021.4.14일)

— 10% 미만의 응답자만이 디지털 유로화의 완전한 익명성을 요구

□ (서비스 제공 방식) 다수의 응답자(2/3)가 디지털 유로화는 **기존 은행 및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합**(integrated)되어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이용자 보호, 데이터 오남용 방지,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 **중개기관**(intermediary)에 대한 **인허가**(licensing) 및 **감시**(oversight) 필요성도 지적

- 아울러 디지털 유로화가 지급결제(simple payment) 이외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공감**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신속지급결제(instant payment),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 등

— 소수 의견(약 10%)으로는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잡성 증가를 이유로 디지털 유로화의 단순성, 안정성, 보안성, 저비용성 등을 부가서비스 제공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

□ (적용 기술 유형) 디지털 유로화에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개인정보 보호, 오프라인 지급결제, 취약계층 사용 등)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일반시민의 경우 **사용자**(end-user) **단계**에서 **기술적 해법**(technical solution)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약 50%)을 차지

— 이러한 솔루션에는 ① 카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과 ②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시민**은 후자보다 **전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전문가의 경우 i) 사용자 단계의 기술적 해법 활용 의견과 ii) 분산원장(DLT), 블록체인 등 백엔드 인프라(back-end infrastructure)를 사용자 단계 기술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각 1/3을 차지

□ **(유통량 관리)** 다수의 일반시민과 전문가(약 50%)는 과도한 디지털 유로화의 공급 및 유통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액 상한**(holding limit) 및 **차등적 사용료**(tiered remuneration)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전문가 그룹 중 학계는 차등적 사용료 부과를, 금융기관 종사자는 보유액 상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액 상한 및 사용료 부과 1단계(tier 1)는 일반시민의 소액결제 필요에 충분한 정도로 설정하며,

타인의 디지털 유로화 송금으로 수취인의 보유상한이 초과될 경우 초과분은 수취인이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 계좌(account)로 자동이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 **(역외 사용)** 디지털 유로화의 **역외 지급결제**(cross-border payment) 사용과 관련하여 다수가 역외거래의 **속도** 및 **비용**과 **환율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exchange rate)을 **핵심 가치**로 선정

○ 역외 사용한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수가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를 전제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3. 주요 언론의 반응

□ 주요 언론은 ECB가 디지털 유로화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금번 공청회가 **가계와 기업이 수용 가능한 디지털 유로화의 특성, 구현 방식** 등을 **규명**하는 **첫 단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선도국인 중국, 스웨덴과 달리 **유로지역**의 경우 금번 공청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가 디지털 유로화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명확히 **확인**(Handelsblatt紙)

○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의 **열쇠**로 작용하고 ECB도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여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연방은행을 중심으로 제기된 **디지털 유로화 도입 시 예상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가 **보유액 상한제, 차등적 사용료 부과**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점에 **주목**(Reuters)

* 디지털 유로화 도입으로 기존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충격이 예상되며, 금융위기 발생시 은행 예금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유로화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뱅크런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